

함께하면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강단교환 주일

오늘은 북가주 한인 코커스 강단교회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말씀은 몬트레이에 가나안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섬기시는 강정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니다.

2. 교육안내

- 1)새신자반 3 (식사후 있습니다.)
- 2)속장,인도자교육(2월28일)
- 3)임원교육 2 (오늘 임원교육은 쉽니다)

3. 모임안내

재정위원회: 오늘 예배후 모임입니다.
 실행위원회 모임: 2월21일 예배후, (대상: 임원회장, 평신도 대표, 남선교회, 여선교회, 재정위원회, 선교부장)
 차터링 미팅: 2월19일(금)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4. 한인 세계선교대회 신청안내

한인세계선교대회가 6월6일(월)-6월10일(금) 아주사 퍼시픽 대학에서 있습니다.

5. K-WE 30 기 (남자)

일 시: 2016년 3월 28일(월) - 31일(목)
 장 소: Redwood Glen, Loma Mar

6. 담임목사일정안내

- 1)Gathering of Church Planters and Friends 2월23일(월) Cal-Nevada Annual Conference.
- 2)강단교환주일(2월14일 주일: 가나안 한인연합감리교회/몬트레이)

예배위원 안내 및 봉사자

	회중기도	성경봉독	점심봉사
02월14일	김숙진 권사		김해경 최성보 김용열
02월21일	안광빈 집사		김규현 김형기 윤문섭
02월28일	안미나 집사		홍윤기 구자홍 안광빈
03월06일	김현덕 집사	김은정	차석준 김규현 짐토마스
2월안내	안미나 김은정	2월촛불점화	최승희 최미란

Fresno 후레스노
 Korean 한인연합감리교회
 United Methodist Church
 1726 Pollasky Ave Clovis, CA 93612 (559)299-0240
 www.fkumc.net fkumc@fkumc.net

목회자 칼럼

보는 것과 듣는 것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그 간격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의 좋고 나쁨의 판단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는 감각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순간에 벌써 대부분의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먹기에도 좋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감각적 요소들 때문에 발달한 것이 인테리어와 마케팅입니다. 물론 그 깊은 의미들을 살펴보면..더욱 세밀하고...복잡한 것들이 섞여있지만... 눈을 보았을 때 좋아야.. 물건도 잘 팔리고.. 더 품위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보는 것을 통해 느끼는 감각에 의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귀로 듣는 것은 여러 가지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도록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사람에 따라 그것을 그려내는 상상력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신중함을 동반하게 합니다.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듣고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차이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사는가에 따라 서로 달라집니다. 보는 것에 무게를 두고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을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갑니다. 보기에 좋아야하고...남들이 보는 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겉치레가 많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겉치레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교회가 보는 것에 익숙하다면...더 좋은 건물과.. 더 좋은 학력과 배경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에 무게를 두고 사는 사람은 겉치레보다는 순종과 믿음에 의지한 삶을 살게 됩니다. 듣는다는 것이 화려함보다는 본질에 가까운 것에 관심을 갖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라고 쉽게 단정하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화려함보다는 소박함에 더 가깝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듣는 것에 익숙하게 된다면...눈에 보이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기보다는 들음으로 순종과 믿음을 이어가는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는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것에 무게를 두어야하는 종교입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문제를 일으킨 이야기는 눈으로 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도 그랬고, 아간도 그랬고, 다윗도 눈으로 본 것을 시작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언자들은 보는 것보다 듣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이순간 미세하지만 그래도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하는 삶의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14일
 사순절첫주



후레스노 한인 연합감리교회
 (1726 Pollasky Ave, Clovis, CA 93612)

예수님의 제자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www.fkumc.net fkumc@fkumc.net

후레스노 한인 연합감리교회
 United Methodist Church

2016년 2월14일
주일오후 12시30분
예배인도: 윤문섭 장로

입례찬양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경배와찬양 Praise &Worship	찬양팀		
❖ 입례송 Anthem	다함께	94장 (통102장)	

고백			
❖ 신앙고백 Confession	다함께	사도신경	
❖ 영광송 Gloria Patri	다같이	2장	
기도 Prayer	김숙진 권사		

말씀선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인도자	엡 4:11-16	
설교 Sermon	강정욱 목사		

직분자의 사명

헌신과 나눔			
봉헌송 Offering	다함께	342장(통395장)	
❖ 찬양 Hymn	다함께	1장	
교회소식 / Announcement	인도자		
❖ 주기도송	다함께		
❖ 축도 / Benedicton	강정욱 목사		

❖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예배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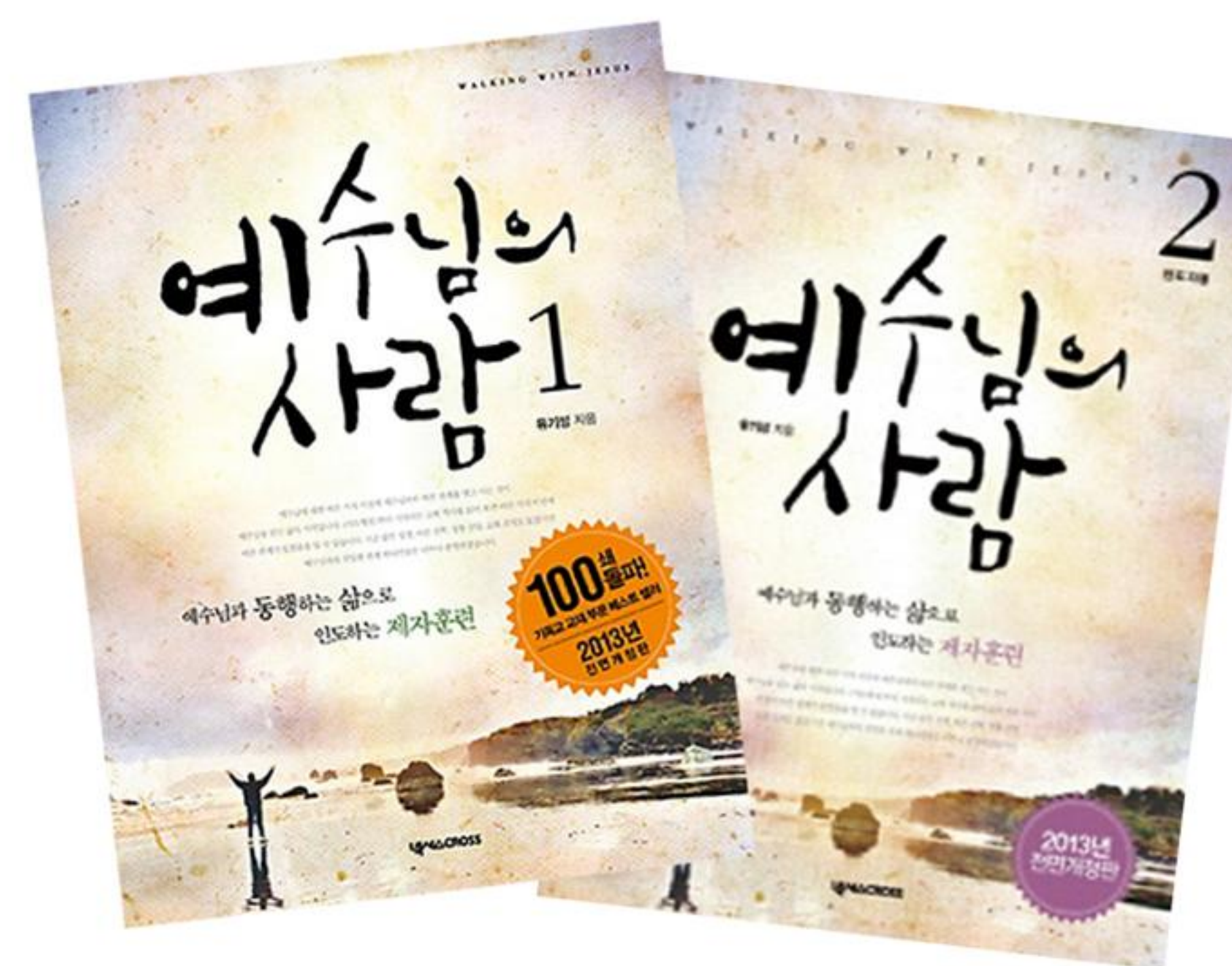
새벽기도회	화-토 새벽 6시	바울서신 강해
수요성경공부	저녁7시30분	예수님의 사람 회의실
주일예배	1부: 오전08시30분 2부: 오후12시30분	교회력설교
토요아침성경공부	아침7시	예수님의 사람

중보기도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1. 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위해
2.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을 위하여
3.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위해 그리고 각 부서를 위해
4. 교회학교사역을 위해서
5. 질병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6. 2016년 기도제목을 위해 (개인별)

❖ 함께 나눌 기도제목은 알려주시면 새벽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담임목사 주소변경
2825 E El Paso Ave, Fresno, CA 93720



2016년 성경공부
예수님의 사람

지난주 헌금 통계

주일헌금	정윤희, 짐토마스, 윤문섭, 윤경희, 임수호, 차석준, 차경미, 한순옥		
감사헌금	캘리박, 구자홍, 구경숙, 김혜진, 임동재, 임정원, 최성보, 최줄리아, 홍윤기, 김의숙		
십일조	장영심, 최승희, 최미란, 홍윤기, 김의숙		
기타	재정반환		
속회헌금		합계	1,947.00

2016 사순절 영적 여정, 작은 실천
2월15일(월)-2월21일(주일)

2/15(월) 자기 편견과 선입견을 생각해보고 이별하기	2/16(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기	2/17(수) 큰소리로 말하지 않고 최대한 말 줄이기	2/18(목) 외로운 분 찾아가서 벗 되어주기
2/19(금) 자기의 고집스러운 부분 꺾어보기	2/20(토) 가까운 자연을 접하고(등산) 피조물을 위해 기도하기	2/21(주일) 중보기도 대상자 오랫동안 연락안한분 과 연락해보기	이한주간 한끼, 혹은 하루 금식해보기 (미디어금식포함)

하워드 테일러

Fresh Korea United 후레즈

사순절 실천내용

1. 사순절 묵상집을 매일 빠짐없이 읽어갑니다.
2. 사순절 묵상집에 소개되어 있는 요일별 기도제목을 위해 중보 기도합니다.
3. 토요일 새벽예배에 참석합니다.
4. 사순절 영적 여정, 작은 실천을 실행합니다.

이번 주 실천내용: 월요일- 자기편견과 선입견을 생각해보고 이별하기, 화요일-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기, 수요일-큰소리로 말하지 않고, 최대한 말줄이기, 목요일-외로운분 찾아가서 벗되어주기, 금요일-자기의 고집스러운 부분 꺾어보기, 토요일-가까운 자연을 접하고(등산)피조물을 위해서 기도하기, 주일-중보기도대상자, 오랫동안 연락 안해본 분 연락하기